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온라인몰’ 확대

광주, 기존 편의점 구매에 제로페이몰·현대이지웰 등 2곳

광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판매 온라인 몰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CU·GS25·이마트24·세븐일레븐·미니ストップ 등 편의점에서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제로페이몰·현대이지웰 등 온라인 쇼핑몰 2개소를 개설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월 1만3000원씩, 연간 최

대 15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거주하는 16~18세(올해 대상자는 2005년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올해 안에 신청·제공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말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북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내달 8일까지 북구청 갤러리…5개 특화분야 성과물 전시

북구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2023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사업 성과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사업은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리화 ▲예비창업자 자금 ▲작업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정책 수요가 높은 5개 특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여 원을 투입해 50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올해 특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전시하여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지역 기업을 널리 알려 우수제품 판로를 지원하고자 이번 전시

회를 마련했다.

전시회에서는 CI·BI·포장지 등 ‘디자인 개발 성과사례’와 ‘우수기술 기반 시제품 제작 성과물’, 특허 출원·제작·홍보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사례’가 주민들에게 소개된다.

또한 성과공유·확산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지원 성과물’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안전 정비 우수사례’도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구는 오는 6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수혜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업 애로·건의사항 상담회 등이 진행되는 성과보고회를 마련해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전남교육청, 5개 언어 고교 설명서 제작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

전남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 교육환경을 고려해 5개 언어로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 설명서’를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로 풀어서는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 설명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학부모 설명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캄보디아)로 구성됐다.

설명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고교 생활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소개, 고입전형 안내, 고등학교 생활 등이 담겨있다.

설명서는 앞으로 22개 시·군·가 족센터와 교육지원청에 보급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총 학생수는 지난 2018년 22만496명에서 지난 2022년 기

준 19만9630명으로 5년만에 10만 명대로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2018년 9789명(4.44%)에서 2019년 1만 517명(4.93%), 2020년 1만701명(5.18%), 2021년 1만1194명(5.5%), 2022년 1만1367명으로 전체 학생의 5.29%를 차지했으며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6211명, 중학생 2597명, 고등학생 996명, 유치원 901명, 특수 50명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 출생이 95%를 차지했으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유학 등은 5%로 분석됐다. 다문화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5374명(4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1820명(16.01%), 중국 1669명(14.68%), 캄보디아 877명(7.72%), 일본 639명(5.62%), 몽골 219명(1.93%), 태국 222명(1.95%), 중앙아시아 146명(1.28%) 순이다.

/김 호 기자

순천경찰-노인회 순천지회, 교통사고예방 협약



순천경찰서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는 27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순천경찰서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가 서로 협력해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설명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조순의 기자

산학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수사확대 전망

‘지역혁신 플랫폼’ 연구 전남대 교수 등 9명 입건

36억 대 보조금 빼돌린 정황…“사업 전반 수사”

자치단체·대학·기업간 협업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취지로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과 관련, 수십억 대 국고 보조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남대학교 A교수와 연구 참여업체 임직원

등 9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이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36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연구과제 수행 도중 사업 또는 필요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신축·이전 부지 소송 마무리…2027년 완공

대법, 토지 소유주 상고 기각…“2024년 실시설계 용역 계획”

법정 소송 등으로 절차가 미뤄져 온 광주 동부경찰서의 신축·이전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신축 동부경찰서 예정 부지(동구 용산동 산 11-3번지 일원) 소유주가 2021년 광주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잠시 멈춤 상태가 이어졌던 동부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2만22㎡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1만6173㎡)의 신청사 건립

을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372억원(토지매입비 35억·공사비 299억·설계비 등 38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982년 현재 자리에 지어진 경찰서가 노후화되고 비좁은 주차공간 등 문제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른다는 등 이유가 겹치면서다. 경찰은 당시 신축·개청 시기를 2024년께로 내다봤다.

경찰은 2018년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해당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와의 부지 확보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경찰은 신축 예정 부지의 74%를

광주·전남에선 지역 혁신 플랫폼에 시·도 지자체와 사업종ial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전략과제는 ▲에너지 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A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이끄는 사업단도 에너지 분야 내 플랫폼·기술 고도화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보조금 유용 의혹 혐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업총괄대학인 전남대 내 사업단과 참여 민간 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지를 압수수색,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뉴스

제2순환로,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할인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이 해당한다.

통행료 할인은 사용 분기지 주소가 광주시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아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심각한 재정적자가 우려됨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915대가 감면차량으로 등록돼 14억6946만 원의 통행료 감면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요금 감면은 광주와 대구에서 시행 중이며, 대구시도 내년부터는 감면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도심 노래방 마약류 유통

투약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광주 도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집단 유통·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방 접객원들이 들어온 마약류를 노래방 내에서 매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내 한 노래방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통책 2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펼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30명도 불잡아 이 중 마약류 투약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2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중 상습 마약 유통·투약 정황이 있는 베트남인 1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계를 구축한 광산구가 100세 시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 의료·돌봄의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는 ‘첫 단추’다.

광산구는 지난 9월 (재)광주테크노파크의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 사회적처방 연계 건강관리소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적 처방 외에 식단, 운동,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민의 삶을 치료하는 광산구만의 특화된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동기 기자

마이크로의료로봇妍·호남대·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맞손



광주 광산구가 2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호남대학교,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사회적처방 연계 건강관리

소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민선 8기 광주·광산형 통합돌봄으로 보편적 통합돌봄체

서구, 108명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 개최

고독사 예방…이웃이 이웃 돌보는 사회안전망 구축



서구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108명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구성해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 위험가구 2397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18명을 지속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확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대상자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이번 활동공유회에서는 이웃돌봄단이 그동안 고립된 이웃을 방문하고 숨은 이웃을 찾으면서 직접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나누며 향후 이웃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조선주 기자